

3. 정책동향

1. 제7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

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'21.5.25(화) 1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'제7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'를 주재하였음. 금번 제7차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기업간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내용인 「제6차 수요·공급기업간 협력사업(모델) 승인에 관한 건」을 포함한 총 6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·확정함

○ 그간의 소부장정책 성과 및 의미

- ① (소부장품목 안정화) 먼저 핵심 소부장 품목 공급을 크게 안정화한 것임.
 - 즉 초기 우려되었던 불산, EUV 레지스트, 불화 폴리이미드 3대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가 뚜렷하게 개선되어 어떠한 생산차질도 빚어지지 않음
 - 특히 신·증설투자, 수입다변화, M&A 등 다각적 방식으로 공급망 안정노력을 추진
- ② (소부장산업 경쟁력 제고) 둘째 규제품목의 공급안정화를 넘어 차제에 소부장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였으며 실제 후속조치가 착실하게 추진
 - 일본 수출규제 관련 100대 품목, 글로벌 공급망(GVC) 관련 85개 품목 등을 선정하여 R&D 2조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핵심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책 추진중
 - 그 결과 '20년까지 23개 품목의 시제품을 개발 완료하고 434건의 특허 출원
 - 또한 이제까지 5차례에 걸쳐 26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하여 수요기업-공급기업간 연계R&D 수행 및 협력생태계를 구축하고, 연구소·대학 등도 인력·장비·기술 등을 적극 지원 중
- ③ (포스트코로나 선제대비 의미) 셋째 소부장정책은 일본과의 소부장 공급망 취약성 대응 노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초래된 글로벌 공급망(GVC) 취약성에 공세적으로 선제대비한 효과
 - 더구나 최근 미중 반도체 경쟁, 이차전지 경쟁 등 GVC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 경우 2년 앞서 공급망 안정정책을 미리 대비한 셈
 - 소부장산업 경쟁력 제고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대비, 디지털경제 전환 대비, 미래신산업 육성 대비 등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

2. 산업기술국제협력 글로벌기술도입형 국제공동기술개발(X&D) 사업 공고

글로벌 핵심·원천기술 도입을 통해 국내기업의 선도기술 조기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촉진하는 「2021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 글로벌기술도입형 국제공동기술개발(X&D)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사업개요

① 목적

- 해외 우수기술 도입 후 추가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 시장진출 확대 등 개방형 혁신 활동 촉진

② 사업내용

- 글로벌 핵심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선도기술 조기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공동 R&D 지원
 - * 기술도입 유형 : M&A, IP인수, 전략적 제휴(지분투자, 합작투자) 등

③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

- 공고예산 : '21년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12억원 내외(3개 과제 내외)
 - *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'21년도 정부출연금으로는 과제별 1차년도(12개월) 사업비의 1/2을 지급하고 나머지 1/2은 '22년도 사업비로 지급 예정
-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: 8억원 이내/년, 최대 3년 이내
 - * 공고예산 및 과제당 지원규모, 지원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

④ 지원대상(신청자격)

- 주관기관 : 해외기술을 도입한 국내 중소·중견기업
 - *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로부터 「기술도입 인증서」를 발급받은 기관에 한하여 사업 계획서 제출가능
- 참여기관 : 국내·외 산·학·연
 - * 참여기관으로 「해외기술 피인수기관」 참여를 권장함
-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"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*"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
 -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"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"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